

전국에서 김대중 정권 농정실패

- 전국에서 농민 3만 여명, 차량 10,000여대 참가 -

- 가두행진 중, 여의도 문화한마당 앞에서 경찰과 충돌 회원 10여명 중경상

지난 10월 22일 김대중 정권 농정실패 규탄 400만 농민 1차 총궐기대회가 서울 보라매 공원에서 농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1만여명의 회원들은 고속도로를 이용 차량시위를 벌이며, 서울 상경투쟁을 전개하는 등 전국적으로 3만 여명, 차량 4,000여대가 총궐기대회에 참석하여 김대중 정권의 농정 실패를 규탄하고,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김세기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본대회 식전행사는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의 공연으로 한층 열기를 더 하였다. 본대회는 박홍수 중앙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다. 박홍수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김대중 정권 집권 5년동안 농업정책으로 농업예산과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농가부채는 증가하는 등 농촌을 이기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김대중 정권은 눈과 귀가 있으면, 농촌의 현실을 보고 들으라"고 촉구했다. 대회는 농정실패 정권과 외교통산부 장관, 농림부 장관 등의 허수아비를 불태우며 절정에 이르렀



폭탄 함성 울려 퍼져!!



다. 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보라매공원에서 여의도 문화한마당까지 가두행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의도 문화한마당 100m 전방에서 경찰의 무차별적 폭력진압으로 인하여 경기, 충청도연합회 회원 10여명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다. 더욱이 충청북의 한 회원은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대회 참석자들은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에 강력히 항의하며, 경찰의 공식사과가 있을 때까지 연좌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또 다시 폭력적으로 대회 참석자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한편, 강원도를 비롯한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도연합회 회원들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시위를 벌이며, 서울상경투쟁을 전개하였다. 경찰은 서울로 상경하는 농민들을 막아 곳곳에서 농민들과 충돌·대치하였다.

한농연은 집회를 마친 후 10월 23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농민들의 몸부림에 대한 대답이 곧 봉과 군화발이란 말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경찰은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과 피해농민 보상을 통해 분노와 상처로 가득한 농민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경찰에 있으며, 농민의 분노와 피의 땀가만이 남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긴급도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이대길 서울지방경찰청장 앞으로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 등 과잉진압에 대한 해명을 10월 25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대표최고의원과,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의원,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청와대 민원실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폭력진압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 회 사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피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면서 냉정을 찾고 여러분을 맞고 있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우리 농민들. 평생을 흙 파먹고 사는 우리 농민들. 일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하고도 손에 쥐는 것은 협동조합에서 날라온 연채상환독촉장을 들고 허탈해 하는 우리 농민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농민이 게을러서 이러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순간에 전국에서 올라오는 우리동지들을 경찰이 원천봉쇄한다는 명분으로 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 막고 있다고 하는데 이 거 말이되는 것입니까?

자리를 함께한 동지여러분 김대중 정권이 우리 농민이 무섭기는 무서운 모양입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동지여러분! 더 이상 물러 날래야 물러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 믿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눈이 있으면 당신의 눈으로 농촌을 둘러보시고 귀가 있으면 이 나라 농민들이 외치고 있는 이 절규를 들어보시고 마음이 있으면 과연 당신이 이 나라 농촌·농업·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 보시오.

그리고 입이 있으면 당신이 후보시절 그토록 약속을 했던 공약을 과연 어디에다 버렸는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처음 했던 일이 농업예산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이래로부터 김영삼 정권까지 10%이상을 유지시켰던 농업예산을 8%대로 끊어 내린 유일한 대통령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집권한 이후 가장 많은 농민이 자살을 했고 가장 많은 농민지도자들이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한 4년 동안 이 나라 농민들의 부채는 50%이상 불어났으며 소득은 3%로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 뒤에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고향을 등지고 야반도주 한 줄 알고 있습니까



▲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해 머리에 피를 흘리며 격렬히 항의하는 농민.

까? 그것도 모자라 마늘협상으로 국제적 망신당하고 50만 마늘농가는 이 나라 정부를 뭐라고하는 지 알기나 합니까?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하는모양인데 그렇게되면 이 나라 농촌과 농민은 어떻게 되는 줄 알기나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 당신께서 이 나라 농촌과 농업과 농민을 이 지경으로 만들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농민 동지 여러분!

요즘 우리 농촌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죽은 사람도 일어나서 일손을 도운다는 가을 수확기입니다. 하루 하루가 급한데 이렇게 모여서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우리의 울분을 토하는데 하루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루가 아니라 열흘이라도 해야합니다.

우리는 이제 익어가는 농작물을 과감하게 수확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우리의 문제가 풀립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중략)

그러나 우리 농민은 생존권을 위해 이렇게 거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행사가 끝나면 정부당국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또 법이라는 잣대로 많은 우리 동지들을 법정에 잡아 세우겠지요.

회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주장할 충분한 가치와 당위성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지금 경찰과 전 공무원 이 동원되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약화시키기 위해 못된 짓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주장은 언제나 이깁니다. 올바른 우리 농민의 소리는 항상 나라를 지탱하는 근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익을 지키게 위해선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오늘의 행사에서 누구도 우리의 단결과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킬려고 하는 행위는 바로 우리 400만 공동의 적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한농연중앙연합회장 박홍수

김대중정권 농정실패 규탄을 위한 400만 농민 총결기대회 결의문

오늘 우리 400만 농민은, 날로 심화되는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 생명산업인 농업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경제성장 시대, 피땀으로 농토를 일구며 몸바쳐 일해온 우리 농민들에게 남은 것은, 무분별한 시장 개방과 저곡가 정책으로 피폐해진 농촌과 멍든 농심밖에 없다. 더욱이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하던 김대중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우리 농민에게 농업·농민말살 정책과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왔다.

지금 농민들은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와 쌀값 하락·농가소득 감소로 기초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한-중 마늘 사기협상과 한-칠레 FTA로 배신당하고 지친 농심은, 정부의 무책임한 수해지역 지원 대책에 무너져 내려버렸다. 농업예산은 국가예산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정부의 허울 뿐인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실시로 말미암아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쌀값은 더욱 형편없이 낮아 지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 12만 농업경영인과 400만 농민들은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10대 요구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김대중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김대중 정권이 400만 농민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하고 물리적 탄압으로 일관할 경우, 우리 12만 농업경영인과 400만 농민들은 농업·농촌회생을 위한 가열찬 투쟁으로 화답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10.22 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은 그동안 반농업적 행위를 일삼은 농정실패 정권, 재정경제부장관, 상업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농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확형시켰다.

▣ 12만 농업경영인과 400만 농민의 10대 요구사항 ▣

1. 농가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 망국적 협상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체결을 강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3. 쌀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4. 피해를 농어촌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5. 협동조합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
6. 국내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7.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라.
8.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9. {농업재해대책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근본적인 농업재해대책을 마련하라.
10. 50만 마늘농가의 희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02년 10월 22일

김대중정권 농정실패 규탄을 위한
400만 농민 종결기 대회 참가자 일동



▲ 집회를 마친후 김대중 정권 농정실패를 규탄하며 거리로 나온 농민들.